정서상황의 종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아동의 타인 행동추론

정 하 나(서울대 박사과정) · 이 순 형(서울대 교수))

행동추론은 아동이 타인의 행동 원인을 추정하여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아동의 타인 행동추론은 아동의 또래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아동이 타인의 행동을 추론할 때에는 상황정보와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추론하는데, 선행 연구에 의하면 정서상황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서상황의 종류,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아동의 타인 행동추론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아동의 행동추론이 정서상황(명확한 정서상황, 모호한 정서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둘째, 아동의 행동추론은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만 3세 유아 34명, 만 5세 유아 33명, 만 7세 아동 36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그림도구를 이용한 일대일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에 대한 아동의 응답은 녹음하여 전사한 후 분석하였다. 행동추론 분석범주는 개인화된 추론 반응, 인지적 추론 반응, 상황적 추론 반응, 가상적 추론 반응으로 구분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에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반복 측정 변량 분석(repeated measures ANOVA), 쌍체 t 검증(paired t-test)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상황에 따라 가상적 추론 반응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정서 상황에 따라 개인화된 추론 반응, 인지적 추론 반응, 상황적 추론 반응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만 3세 유아의 개인화된 추론 반응 점수는 만 5세, 만 7세 아동의 점수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만 5세와 만 7세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여아가 남아보다 개인화된 추론 반응 점수가 높았다. 반면, 성별에 따른 인지적 추론 반응, 상황적 추론 반응, 가상적 추론 반응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